

0811(목) 예레미야 16-20장 귀 기울이기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16:6,13-14, 17:4, 19:11).

그러니 결혼, 출산, 문상이나 축하가 모두 혀된 일입니다(16:2,5,8).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18:12).

<나는 내 계획대로 간다>며 고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음에도 여지를 남기십니다(18:8).

백성이 돌아오면 주님도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죄가 아니라 선지자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들이 충분하니

그의 예언쯤은 헐뜯고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18:18, 20:1,26:8)

예레미야는 ‘분노에 찬 정직한 기도자’로 기도합니다. 김근주, 특강 예레미야

그의 <저주기도>는 고난당하는 약자들의 상황과 심경을 대변합니다.

약자들의 고난은 구조적인 악, 공동체의 방관으로 심화됩니다.

<저주기도>는 한 개인의 탄식, 한풀이를 넘어(8:18-23, 20:7-18)

일조 및 방관하는 우리 각자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편애>하십니다(시109:30-31).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히. 나카), 복수로도 해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약자들의 신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에 일조하며 방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와 악행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20:4).

나는 하나님과 약자들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❶ 임박한 심판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❷ 사회적 약자들의 고난에 일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